

THE WEALTH GUIDE

2025 Vol.9



Part.2 투자

연기금의 대체투자 확대 움직임과 시사점

연기금의 대체투자 확대 움직임과 시사점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이명열 투자전문가

myung.lee@hanwha.com

(작성일 : 2025.8.29)

Summary

- 미국은 퇴직연금(401(k)) 투자자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암호화폐·사모펀드·원자재 등 대체투자 확대 허용하여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예고
- 401(k) 자산 규모는 약 8조 7천억달러(한화 약 1경 2,100조원)으로, 일부 자금이 암호화폐에 투자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중장기적 확대 기대
- 분산투자 및 수익률 제고 위해 은퇴자산 내에 암호화폐를 편입한다면,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ETF를 통한 간접투자 등이 바람직

미국 트럼프 행정부, 퇴직연금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25년 8월 401(k) 투자자를 위한 대체투자 접근의 민주화 (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행정명령에 서명함. 이때 대체투자로 **암호화폐, 사모펀드, 부동산, 원자재, 인프라 투자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여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 증가**
- 미국의 대표적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인 401(k)는 미국 세법 401조 k항에서 규정된 제도의 이름을 딴 것으로, 가입자가 약 9,000만명에 달함. 미국투자회사협회(ICI, Investment Company Institute)에 의하면 401(k) 자산 규모는 2025년 1분기 말 기준 약 **8조 7,000억달러(약 1경 2,100조원)**로, **전체 DC 시장(12.2조 달러)의 70% 이상** 차지

401(k) 투자자를 위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취지	대체자산 투자 허용을 통한 분산투자 기회 및 수익률 제고 기대
대체자산 정의	비상장 증권, 부동산 담보 부채, 디지털 자산 투자 액티브 펀드 , 원자재 투자 상품, 인프라 개발 투자, 종신소득 보장 투자상품
필요 절차	180일 이내 노동부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 검토와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
주요 이슈	가격 변동성 통제, 대체투자 유동성 부족, 수수료·평가 복잡성, 법규 변동성, 행정·기록관리 준비, 투자자 이해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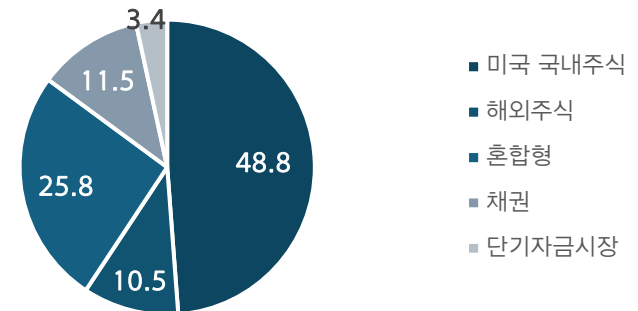
* 자료 : 미국 백악관, 메리츠 등 국내 증권사 리서치 참조

분산투자 기회 확대와 수익률 제고 목적

- 현재 401(k) 퇴직연금 자산의 약 61%가 뮤추얼펀드(공모펀드)에 투자되며, 그중 **미국 국내주식이 48.8%**로 가장 큰 비중 차지. 그외 **해외주식 10.5%, 혼합형 25.8%, 채권 11.5%, 단기자금시장 3.4%** 등 투자 중
-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401(k)의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행정명령으로 퇴직연금의 **분산투자 기회 확대 및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미국 401(k) 공모펀드 투자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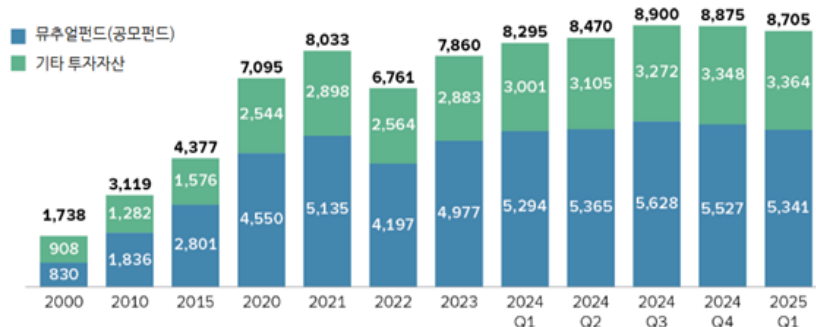
* 자료 : ICI, 2025년 1/4분기 기준

가산자산 시장으로의 증장기 안정적 자금 유입 기대

- 미국 노동부는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체자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빠르면 **2026년 중에 401(k) 내 가상자산 편입이 가능하다**는 얘기
- 정책이 최종 확정되어 401(k)에 암호화폐 편입이 허용되면, 대규모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음. **전체 401(k) 자산의 1~5%만 암호화폐에 투자되어도, 증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 기반이 확대되고 구조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미국 401(k) 자산 추이

(단위: 10억달러)



* 자료 : ICI

미국 지니어스 법,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법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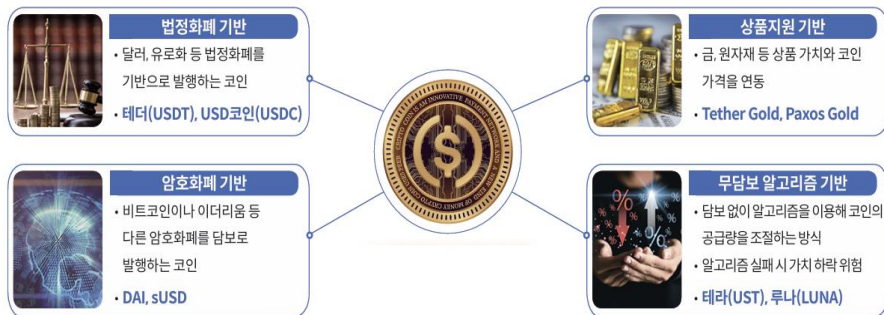
- 은퇴 자산에 고위험 상품인 암호화폐를 포함시킨다면 분산투자 대상이 늘어나고 기대수익률을 제고할 수도 있겠지만,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아 은퇴자산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도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8월 중순 기준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4조 달러에 달함. 이 중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만 2.3조로 알파벳이나 아마존 시총과 유사한 수준. 예를 들어 금융위기가 발생해 투자자금이 이탈하면, **가상자산의 가격 하단을 지탱해 줄 수단이 없어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월 ‘지니어스 법(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nited States Stablecoins: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을 제정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및 운영에 대한 규제 체계 마련**
-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달러’식으로 **법정 화폐와 연동하여 여타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의 안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가상자산 교환 매개로도 사용**

스테이블코인, 통화가치 연동된 디지털 자산

-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자의 예치금을 받아 국채, MMF, 예금 등과 같은 형태의 준비자산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
- 예를 들어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는 1코인을 발행하면 1달러 만큼의 국채를 매수하고, 투자자가 코인을 매도하면 국채를 팔아 달러를 지급. 다만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중요

스테이블코인 유형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기축통화, 국채, 금 등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실물자산을 담보물이나 준비금으로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하며, 2014년 7월 스테이블코인 '테더'가 처음 출시됨.



* 자료 : 국회도서관 데이터플러스

높은 접근성과 투명성, 낮은 비용 및 속도 측면 효율성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모는 2020년 7월에는 110억 달러 정도였지만, 2025년 현재 약 2,400억달러(약 330조원)로, 테더(USDT, 67%)와 서클(USDC, 27%)이 대부분을 차지
- 미국의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정식으로 제도화하고, 은행 자회사나 연방 및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업체 등에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 발행사는 미국 단기채권 등을 지급 준비금으로 의무 보관해야 하며, 매월 준비금을 공시해야 하고,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청 등 기존 금융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음.
-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운영돼 높은 접근성과 투명성, 낮은 비용 및 속도 측면에서 효율성 등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됨.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시장 및 디파이(DeFi) 플랫폼 내에서 전송이 간편하고 속도가 빠른 스테이블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선호할 수 있음. 또한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함.



코인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잠재적 위험 요인 상존

- 스테이블코인은 높은 가치 안정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여타 **암호화폐나 법정통화**를 대신해 **가상 자산시장 내에서 주요한 거래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금융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달러가 99%, 유로와 엔 1% 수준
- 반면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주요 위험으로 **코인런(대규모 인출사태), 결제·운영·자본유출 위험,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등이 제기됨.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CBDC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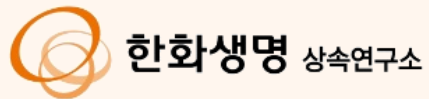
구분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CBDC
발행주체	민간	한정된 민간	중앙은행
가치안정성	내재가치 없음	화폐 담보로 안정적	정부 관리로 안정적
화폐단위	독자단위	독자단위	법정화폐 단위
익명성	보장	보장여부 선택 가능	보장여부 선택 가능
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테더, 서클 등	디지털위안 등

* 자료 : 국회도서관 데이터플러스

은퇴자산으로 분산투자 시 유의사항

- 은퇴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준비하는 만큼 금융시장 흐름의 커다란 변화를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가상자산은 당초 투기성 짙은 상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제도권 편입을 앞둔 상태
- 개인적으로 은퇴자금의 분산 투자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포함시킬 것인지는 여부는 투자자 성향에 크게 좌우될 것임.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고위험 자산**으로 파악되기 때문. 더욱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이 이론상으로는 보안성이 높지만, 거래소나 디지털 지갑 해킹 위험 및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 등에도 노출되어 있음.
- 은퇴자산의 일부를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면, **거래량과 유동성이 충분한 디지털 자산 혹은 ETF를 통한 간접투자가 바람직**할 수 있으며, 적립식 투자 혹은 분할 매매를 통해 투자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이 위험 분산에 효과적





필수 안내사항

- 본 자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한화생명보험(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한화생명보험(주)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한화생명보험(주)에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주)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